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3, No. 8 pp. 268-275, 2022

https://doi.org/10.5762/KAIS.2022.23.8.268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임상수행능력의 관계 :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

박동진[1], 지은미[2*]
[1]경기복지재단 복지협력팀, [2]한영대학교 간호학과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Leadership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of Nursing Student : Mediating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ong-Jin Park[1], Eun-Mi Ji[2*]
[1]Welfare Cooperation Team, Gyeonggi Welfare Foundation
[2]Department of Nursing, Hanyeo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임상수행능력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남 J시 소재 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이면서 임상실습을 마친 학생들 중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197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임상수행능력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간호전문직관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임상수행능력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임상수행능력의 관계를 간호전문직관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증진하고 강화하기 위한 셀프리더십과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교육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본 연구가 가진 함의 및 한계점,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th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of nursing students, and als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values of nursing professional in these relationships. For this purpose, data were collected from 197 students who were enrolled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at the University in J-city, Gyeongnam province, had completed clinical practice, and voluntarily expressed their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elf-leadership of the nursing student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ir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Second, it was found that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ir nursing professional values. Third, the nursing professional values of nursing students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ir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Fourth, it was found that nursing professional values par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th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of nursing stud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educational methods for improving self-leadership and nursing professional values were discussed to enhance and strengthen th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of nursing students. Further,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stated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were made.

Keywords : Nursing Student, Self Leadership,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Nursing Professional Value, Mediating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Eun-Mi Ji(Hanyeong Univ.)
email: psyjem@nate.com
Received May 3, 2022 Revised May 30, 2022
Accepted August 3, 2022 Published August 31, 2022

1. 서론

대학에서의 간호교육은 유능한 간호사를 양성하여 의료현장으로 배출하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양질의 간호교육을 통해 간호대학생이 유능한 간호사로서의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간호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임상수행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임상수행능력은 교육과정에서 학습된 지식, 기술, 태도, 판단 등을 임상현장에서 적절하게 보여주고 유능하게 수행하는 전문성이 높은 능력을 말한다[1]. 임상수행능력을 갖췄다는 것은 환자들에게 수준 높은 간호를 제공하고, 자아인식, 동기부여, 정서적 영향력, 기술과 지식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통합하는 행위 또는 효과적인 임상간호의 수행을 의미한다[2]. 임상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과 예상치 못한 문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상황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해당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간호교육에서는 임상수행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대해 셀프리더십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5]. 셀프리더십은 개인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여 보다 높은 성과를 획득하는 데 효과적인 내적 리더십이다[6]. 셀프리더십은 스스로가 자신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여 직무를 수행해나가고 이끈다[7]. 이러한 맥락에서 간호에서 셀프리더십은 간호사의 동기유발을 강화시키고, 간호사 스스로 자기를 관리하게 하고, 업무목표를 설정하여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한다[3,4,8].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간호전문직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9,10].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자의 간호활동 과정과 직업의식적인 견해를 말한다[11].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사람일수록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간호활동 과정이나 그 직분 자체에 대한 직업의식적인 견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11]. 그러므로 간호전문직관은 간호교육에서의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학습성과 중 하나로서, 전공지식을 중심으로 하여 임상실습환경에서 이론과 실무 사이를 연결함으로 전문직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12]. 간호전문직관은 간호를 행하는 사람이 어디서 만족과 그 의의를 얻는가하는 문제와 직결되어있고, 실무자와 전문가 그룹에 의해 수용되는 행동의 기준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신념과 태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틀을 제공한다[13].

한편,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이 임상수행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4-16] . 즉 간호대학생이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간호활동 과정이나 그 직분 자체에 대한 직업의식적인 견해가 명확할수록 임상수행능력도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간호전문직관, 임상수행능력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특히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셀프리더십과 임상수행능력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어 이들 변인 간의 관계에서 이들 관계를 매개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임상수행능력의 관계와 이들 관계에서의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임상수행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임상수행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임상수행능력의 관계를 간호전문직관이 매개하는가?이며,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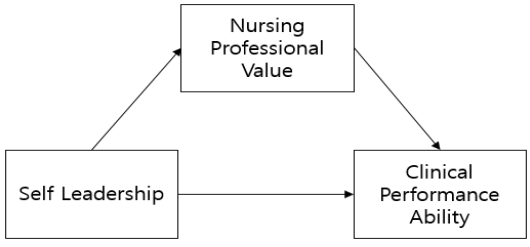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남 J시 소재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하고 있으며, 임상실습 수행경험이 있는 4학년생을 연구대상을 설정하였다. 연구대상인 200명의 학생들에게 연구목적, 자료활용 범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에 자발

적으로 참여하기로 동의한 학생들만을 선정한 결과, 총 179명이었다.

2.2 자료수집방법

2021년 9월 한 달 간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연구의 표본크기는 G*Power 3.1.3 프로그램으로 다중회귀분석 방법에서 중간크기 .15, 유의수준 95%, 검정력. 08일 경우에 최소 표본 수가 90명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수가 179명이므로 필요한 표본 수는 충족하였다. 특히, 자료수집에 있어서 연구대상인 간호대학생들이 연구목적 및 자료활용 범위 등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참여에 대한 안내를 하였으며, 자발적인 의사를 표현한 사람에 한해서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에 대한 중도철회가 가능함과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도 고지하였다.

2.3 측정도구

2.3.1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하여 Manz[17]가 개발하고 Kim[18]이 수정 · 보완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조사문항은 '자기기대', '리허설', '목표설정', '자기보상', '자기비판', '건설적 사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문항은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자신한다", "나는 일을 할 때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등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뜻한다. Manz[17]에서 Cronbach's α는 .87이었고, Kim[18]에서 Cronbach's α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2인 것으로 나타났다.

2.3.2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Schwirian[19]의 Six-Demension을 토대로 하여 Lee 외[20]가 개발한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를 Choi[21]가 수정 · 보완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호과정 "건강력 자료를 수집한다(정신, 사회문화적, 발달 측면)" 등 11문항, 간호기술 "투약을 정확히 한다" 등 11문항, 교육/협력관계 "환자의 가족에게 질병예방법을 교육한다" 등 8문항, 대인관계/의사소통 "환자의 개인적인 면(종교, 습관, 기호)에 관심을 갖고 이해하며 필요한 도움을 주도록 노력한다" 등 6문항, 전문직 발전 "새로운 치료와 간호방법에 흥미를 갖는다" 등 9문항으로 총 45문항이다.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뜻한다. Lee 외[20]에서 Cronbach's α는 .97이었고, Choi[21]에서 Cronbach's α는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7인 것으로 나타났다.

2.3.3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을 측정하기 위하여 Yeun 외[11]가 개발한 29문항을 Han 외[22]가 축소한 1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전문직 자아개념 "간호사는 박애정신을 지닌 성숙한 인격을 지닌다" 등 6문항, 사회적 인식 "간호사의 사회적 지위는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등 5문항, 간호의 전문성 "간호직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인만이 행할 수 있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직업이다" 등 3문항, 간호계의 역할 "다른 전문직과의 관계에서 전문직인 과업수행과 성숙한 인격을 보여준다" 등 2문항, 간호의 독자성 "간호사는 병원의 다른 전문인처럼 간호의 전문성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는다" 등 2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역채점 문항은 역채점하여 사용하였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뜻한다. Han 외[22]에서 Cronbach's α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9인 것으로 나타났다.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대상 데이터를 SPSS 27.0 및 SPSS PROCESS macro 4.0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에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Baron & Kenny[23]와 Sobel[24]의 Sobel test가 1종 오류를 증가시키므로 연구결과의 타당도 측면에서 삼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25]. Hayes[26]가 개발한 SPSS PROCESS macro는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정규성이 자유롭고, 1종 오류의 오차를 낮출 수 있고, 직접효과, 매개효과, 조절효과 등을 단번에 검증하여 살펴볼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 분석방법이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임상수행능력의 관계와 이 관계에서의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자료분석은 먼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으로 주요 변수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자료의 정규분포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하였고, 그 다음으로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를 확인하였다. 또한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s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임상수행능력의 관계와 이 관계에서의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4.0의 모델 4를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고, 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였다.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고, 편향수정백분율법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경로분석에서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구분하여 총효과를 살펴보았다.

3. 연구결과

3.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주요변수인 셀프리더십,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관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Table 1). 왜도의 절대값이 .07~.53으로 3을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첨도의 절대값이 .20~2.59로 10을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로써 각 변수의 정규분포성의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SL	CPA	NPV
N	179	179	179
Mean	3.71	3.75	3.79
SD	.55	.55	.50
Skewness	-.35	.53	.07
SE	.18	.18	.18
Kurtosis	2.59	-.20	-.37
SE	.36	.36	.36

SL: Self Leadership, CPA: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NPV: Nurse Professional Value

또한 주요 변수들 간의 Pearsons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Table 2), 임상수행능력은 셀프리더십(r= .57, p<.001), 간호전문직관(r=.62,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셀프리더십과 간호전문직관(r=.51,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8을 넘지 않았고, 분산팽창계수(VIF)가 1.356으로 10 이하로 나타났으므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SL	CPA	NPV
SL	1		
CPA	.57***	1	
NPV	.51***	.62***	1

*p<.05, **p<.01, ***p<.001
SL: Self Leadership, CPA: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NPV: Nurse Professional Value

3.2 셀프리더십과 임상수행능력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4.0을 활용하였으며, 모델 4를 이용하여 매개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모델 1에서는 독립변수인 셀프리더십이 매개변수인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모형의 설명력은 26.26%인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63.0461, p<.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셀프리더십은 간호전문직관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4689, β=.5125, p<.001),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델 2에서는 셀프리더십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총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변수인 셀프리더십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이 모형의 설명력은 32.91%인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86.8390, p<.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셀프리더십은 임상수행능력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5724, β=.5737, p<.001),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델 3에서는 독립변수인 셀프리더십과 매개변수인 간호전문직관을 투입하여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모형의 설명력은 47.00%인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78.0398, p<.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셀프리더십(B=.3489, β=.3497, p<.001)과 간호전문직관(B=.4766, β=.4371, p<.001)은 임상수행능력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셀프리더십과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도 높을 것을 알 수 있었다. 모형 2를

통해서 확인되었던 셀프리더십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이 모형 3을 통해서도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간호전문직관은 셀프리더십과 임상수행능력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3. The Mediating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 Value in relationship Between Self Leadership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Variables	Model 1 (outcome variable : NPV)		
	B(S.E)	β	t
constant	2.0557(.2213)		9.2910***
SL	.4689(.0591)	.5125	7.9402***
NPV			
R-squared	.2626		
F	63.0461		
Variables	Model 2 (outcome variable : CPA)		
	B(S.E)	β	t
constant	1.6326(.2301)		7.0938***
SL	.5724(.0614)	.5737	9.3187***
NPV			
R-squared	.3291		
F	86.8390		
Variables	Model 3 (outcome variable : CPA)		
	B(S.E)	β	t
constant	.6527(.2502)		2.6088**
SL	.3489(.0638)	.3497	5.4722***
NPV	.4766(.0697)	.4371	6.8396***
R-squared	.4700		
F	78.0398		

*p<.05, **p<.01, ***p<.001
SL: Self Leadership, CPA: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NPV: Nurse Professional Value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였다. 각 변수의 영향관계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살펴본 결과(Table 4),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의 직접효과는 .57로 나타났다. 또한 셀프리더십과 임상수행능력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을 경유하는 간접효과는 .22이며, 95% 신뢰구간에서 간접신뢰구간은 .45~.69 사이에 있으며,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Table 4. Effect Decomposition Table of Mediating Model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95% Bias Corrected
SL→CPA	.57		.57	.45~.69
SL→NPV→CPA		.22		

SL: Self Leadership, CPA: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NPV: Nurse Professional Value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임상수행능력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임상수행능력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연구결과는 서인순 외[3], 동화진과 최미숙[4], 이선화와 이은자[5]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임상수행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높이는 접근이 주효함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셀프리더십은 개인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직무를 수행해나가고 이끌므로, 매우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행태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3,4,8]. 이와 같이 간호대학생이 타의에 의해 타성적인 임상수행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간호전문직으로서의 매우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간호교육차원에서는 플립러닝, 블렌디드 러닝 등 다양한 교육방식을 통해 상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구축하여 제공하고, 학습공동체 학습, 하브루타 학습법 등 자율적인 학습을 직접 체험하여 습득토록 하는 방법이 적극 권장된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7,9].

둘째,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간호전문직관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연구결과는 김창희와 김정이[9]와 권진희와 최봉실[10]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간호전문직관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높이는 교육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아지는 선행연구 결과[27]를 고려할 때, 간호교육차원에서는 실제적인 이론학습 및 실제 적용이 병행되는 액션러닝 교수학습방법이나 문제

중심학습 등을 활용하여 간호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나가도록 하며, 간호전문직관을 더욱 강화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28,29].

셋째,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임상수행능력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김효원과 유명숙[14], 권상민 외[15], 김영선 외[16]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임상수행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확고히 하는 교육이 주효함을 알 수 있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를 행하는 사람이 어디서 만족과 그 의의를 얻는가하는 문제와 직결되어있고,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간호활동 과정이나 그 직분 자체에 대한 직업의식적인 견해를 갖는 것이다[11]. 그러므로 간호교육차원에서는 간호대학생이 간호전문직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간호전문직으로서의 모범적인 임상수행사례를 상시 익힐 수 있도록 하며, 간호전문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임상수행능력의 관계를 간호전문직관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직접 임상수행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김창희와 김정이[9], 권진희와 최봉실[1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면서도,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아진다는 김효원과 유명숙[14], 권상민 외[15], 김영선 외[16]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간호전문직기관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대해 셀프리더십이 간호전문직관에 선행하는 영향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셀프리더십은 간호전문직관을 통해 보다 임상수행능력을 높이는 데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셀프리더십과 간호전문직관이 모두 간호전문직관은 이는 간호대학생이 임상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하는 셀프리더십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뿐 아니라 간호전문직관을 강화시키는 교육적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간호교육차원에서는 간호대학생에 대한 자기주도적 학습을 격려하고 장려하는 학습문화 조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간호전문직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간호전문직 선배들의 전문직으로서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례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28], 선배 간호사와의 멘토링 등을 통해 자연스러운 현장에서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29].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이들의 셀프리더십을 증진시키는 교육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간호대학생이 향후 간호사로서 유능한 임상수행능력를 갖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보다 강화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간호교육 차원에서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지도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전반적인 교육환경이 셀프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교수의 교육방식과 교육과정의 운영이 보다 개선될 필요가 있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간호전문직관을 강화시키는 교육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전문직으로서의 성공적인 경험이 많을 때 더욱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서의 성공경험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임상실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임상실습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도록 기획단계에서부터 실행, 모니터링, 환류단계에 이르기까지 대학 및 병원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및 병원이 간호전문직을 양성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임상실습에서 간호전문직으로서 갖추어야 한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고,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도가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임상수행능력의 관계와 이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셀프리더십,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횡단적인 시점에서 살펴보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달하는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에 대한 종단적인 조사를 통해 셀프리더십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와 이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살펴본다면 본 연구결과가 가진 한계점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References

[1] Y. M. Cho., M. S. Choi. "Effect of clinical nurse's basic psychological need, self-leadership and job stress on nursing performa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4, No.8, pp.343-353, Aug. 2016.
DOI: https://doi.org/10.14400/JDC.2016.14.8.343

[2] J. Lee-Hsieh., C. Kao, Kuo C et al. "Clinical nursing competence of RN-to-BSN students in a nursing concept based curriculm in Taiwan",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42. pp.536-545, Dec. 2003.
DOI: https://doi.org/10.3928/0148-4834-20031201-05

[3] E. S. Seo., H. E. Park., J. Y. Kim. "Impact of Self-leadership and Metacognition on Clinical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8, No.6, pp.3423-3436, Dec. 2016.

[4] H. J. Dong., M.S. Choi. "Influence of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elf-leadership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23, No.4, pp.373-382, Nov. 2016.
DOI: https://doi.org/10.7739/jkafn.2016.23.4.373

[5] S. H. Lee, E J. Lee. "Influence of Nurse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adership on Clinical Competency in Medium Sized Hospital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24, No.3, pp.336-346, Dec. 2018.
DOI: https://doi.org/10.22650/JKCNR.2018.24.3.336

[6] C. C. Manz. "Taking the self-leadership high road: Smooth surface or potholes ahead", *Academy of Management perspectives*, Vol.29, No.1, pp.132-151, Feb. 2015.
DOI: https://doi.org/10.5465/amp.2013.0060

[7] K. H. Kim, J. H. Kim. "Self-Leadership in Korea: Review and Theoretical Implication", *The Korean Leadership Review*, Vol.6, No.1, pp.77-98. Feb. 2014.

[8] H. S. Park, J. Y. Han. Sel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aty*, Vol.26, No.3, pp.695-706, Jun. 2015.
DOI: https://doi.org/10.7465/jkdi.2015.26.3.695

[9] C. H. Kim, J. Y. Kim.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Learning Environment, Self-leadership, and Clinical Practice Belonging on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5, No.1, pp.5-16, Feb. 2019.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9.25.1.5

[10] J. H. Kwon, B. S. Choi.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Psychological Well-Being,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on Nursing Professionalism - For First Grader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8, No.5, pp.297-304, May. 2020.
DOI: https://doi.org/10.14400/JDC.2020.18.5.297

[11] E. J. Yoon, Y. M. Kwon, O. H. Ah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5, No.6, pp.1091-1100, Oct. 2005.
DOI: https://doi.org/10.4040/jkan.2005.35.6.1091

[12] Keeling J, Templeman J. "An exploratory study: Student nurses' perceptions of professionalism",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13, No.1, pp.18-22, Jan. 2013.
DOI: https://doi.org/10.1016/j.nepr.2012.05.008

[13] D. Weis, M. J. Schank. "Toward building and international consensus in professional values", *Nurse education today*, Vol.17, No.5, pp.366-369, Oct. 1997.
DOI: https://doi.org/10.1016/s0260-6917(97)80096-2

[14] H. W. Kim, M. S. Yoo. "The Influences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14(2), pp.45-54, 2020.
DOI: https://doi.org/10.12811/kshsm.2020.14.2.041

[15] S. M. Kwon, J. H. Lee, R. W. Kwon, J. H. Lee. "The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Teaching Efficiency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1, No.8, pp.267-276, Aug. 2020.
DOI: https://doi.org/10.5762/KAIS.2020.21.8.267

[16] Y. S. Kim, H. H. Kim, J. E. Kim.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elf-efficacy on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2, No.2, pp.171-184, Feb. 2021.
DOI: http://dx.doi.org/10.22143/HSS21.12.2.13

[17] C. Manz Charles. *The art of self-leadership: strategies for personal effectiveness in your life and work*, New Jersey: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1983.

[18] H. S.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self-leadership and the job satisfaction at secondary schools*. Master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2002.

[19] P. M. Schwrian.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nurse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Nursing Research*. Vol.27, No.6, pp.347-351, Dec. 1978.

[20] W. H. Lee, C. J. Kim, J. S. Yoo, H. K.Hur, K. S. Kim, S. M. Lim. Development of a clinical competency measurement tool for student. Yonsei Journal of Nursing Science, No.13, pp.17-29, 1990.

[21] M. S. Choi,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effectiveness of clinical nursing education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2005.

[22] S. S. Han, M. H. KIm, E. G. Yeun.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4, No.1, pp.73-79, Jun. 2008.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08.14.1.073

[23]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2, Jul. 198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24] M. E. Sobel.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pp.290-312, Nov. 1982.

DOI: https://doi.org/10.2307/270723

[25] H. E. Lee. "Review of Methods for Testing Mediating Effects in Recent HRD Research", *The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Vol.16, No.3, pp.225-249, Aug. 2014.
DOI: https://doi.org/10.18211/kjhrdq.2014.16.3.009

[26] A. F. Hayes.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Press, 2013.

[27] S. J. Moon. "The Effects of Lessons Applying Action Learning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on Self 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Problem Solving Ability",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1, No.2, pp.1342-1357, Jan. 2021.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2.1343

[28] J. J. Yan, H. K. Kim. "The Effect of Case-based Practice Education Program on Clinical Competenc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safety culture*, No.14, pp.185-197, Dec. 2021.
DOI: https://doi.org/10.52902/kjsc.2021.14.185

[29] E. S. Jung. "Influencing the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17, pp.339-355, Sep. 2020.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17.339

박 동 진 (Dong-Jin Park) [정회원]

• 2022년 3월 ~ 현재 : 경기복지재단 복지협력팀 연구위원

〈관심분야〉
청소년복지, 청년복지, 사회복지실천

지 은 미(Eun-Mi Ji) [정회원]

• 2014년 10월 ~ 현재 : 한영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간호관리학, 간호윤리